

## 1. 들어가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내게 맡겨진 과제는 변화하는 일상을 어떻게 파악, 기록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나는 공간과 로컬, 로컬리티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들을 살펴보고, 민속학이 변화하는 일상을 대상화하는 한 방법을 그 논의들 속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사실 이 주제는 내가 그간 연구해 온 것들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한 나의 관점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려는 이유는 그간 민속학에서 추구해 온 연구 방법과 모종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민속의 파급과 전파의 양상을 동심원론으로 이론화한 바 있다. 소자(E. Soja)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의 도시생태학(urban ecology) 학파들은 도시의 공간적 인과성을 주장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동심원론을 공간분석의 주된 방법론으로 활용했다.(E. Soja, 2015: 286~287) 또한 산업화 시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주목했던 바우징거(H. Bausinger)는 민속이 대중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 계층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통되는 양상을 민속학의 주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H. Bausinger, 1990) 이러한 사례들만 보더라도, 공간에 대한 관심과 분석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민속학의 방법론에 배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간 산출된 인접학문의 논의들을 개괄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속학의 특장을 살릴 수 있는 일상 연구의 한 방법론을 모색해보겠다.

## 2. 일상 연구의 패러다임

사회학에서 일상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엽을 지나 1970년대에 이르러서다. 당시 일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비단 사회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니, 철학, 정치학, 역사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급증했다. 그 연구들이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 위에서 일상을 다룬 까닭에 그 등장을 하나의 배경 논리로 설명하거나, 또는 하나의 패

러다임으로 묶어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일상을 새롭게 주목하게 된 데에는 기존의 지배적 방법론이 가진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함께, 그 방법론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급부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강수택에 따르면, 위의 다양한 일상 연구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느슨하게나마 공유하고 있다.

첫째, 그것들은 경제나 정치 등 특정한 영역의 논리로 사회 전체를 설명하려는 경향에 반대하며, 총체적인 생활 논리의 관점에서 생활 주체인 인간을 주목한다. 즉, 일상은 경제, 정치 등 기존의 사회 구조 혹은 ‘체계’로 일컬어지는 영역의 주변부나 잔여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회 활동의 가장 중심적인 영역으로 상정된다. 또한 일상적 삶의 각 영역 곧, 노동, 여가, 가정, 기타 사회적 관계의 제(諸) 영역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단위로 상정된다.

둘째, 그것들은 영웅이나 전문가가 아닌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통사람들의 상식적 지식과 일상적 실천의 의미를 주목한다. 따라서 위로부터 주입되는 지배적 논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산되는 실천적 논리에 강조점을 둔다. 또한 외부의 관찰자가 아니라 내부의 참여자, 그들 스스로의 관점에서부터 일상 세계를 파악하는 까닭에, 외부 관찰자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생활 주체의 경험 세계, 주관적인 의미, 실천적 행위를 토대로 그들의 일상 세계를 재구성, 포착하고자 한다. 요컨대, ‘아래로부터(von unten)’, ‘안으로부터(von innen)’의 관점을 취한다.

셋째, 그것들은 생활 주체의 경험과 사고를 정태적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대신에 동태적 맥락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과 사회,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고 인간을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며 사회적인 관계 속에 얽혀 있는 존재로 본다.

넷째, 그것들은 학문 영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넘어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민속학, 문학 등 관련 학문들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히 강조한다. 나아가 추상적인 이론 구성과 경험적 연구 사이의 경직된 구분을 비판하고 양자의 결합, 특히 경험에 기초한 이론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강수택, 1998: 25~27)

이러한 관점의 공유는 일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존 사회과학의 방법론으로부터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 연구들이 몇 가지 비판에 직면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기존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주관적인 경험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전체 사회에 대한 조망을 결여한 채 미시적 연구에만 집중하려는 경향, 나아가 개념적 분석을 기피하는 反 분석적 태도에 머무르는 경향 등이 그 주된 비판의 대상이었다.(J. Kocka, 1987: 23~30)

물론 전체 사회의 구조나 변동을 독립 변수로 삼는 인과론적 설명방식을 일상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일뿐더러 일상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사회 구조나 사회 변동은 개인의 일상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역사적 환경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개인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종래의 촌락사회와 같이 그간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지속되어 온 관행을 조사, 연구해 온 민속학이 특히 경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위의 몇 가지 관점을 공유하면서도, 미시적 차원의 주관적 경험들을 反 분석적으로 기술하는 데 그친 기왕의 연구 경향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각적인 고민과 심층적 토론이 필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겠다. 이에 그 본격적인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일상에의 관심 증대와 동시적으로 진행된 공간과 로컬, 로컬리티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주목해보겠다.

### 3. 일상과 공간

앞에서 지적했듯이 ‘세계 내적 존재’로서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관계 속에 얽혀 있다. 그리하여 그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회적 삶을 이어나가는 일상생활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 행위와 구조를 그 기본 요소로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의 세계는 특정한 시공간을 따라 그 시공간 속에서 매일 매일의 행위를 통해 형성되는 실체다.”(金玉培, 1995: 61) 그런 점에서 시공간은 인간의 경험을 조직하는 단순한 형식적 테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 행위를 실현하는 실존적 토대이며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간은 시간과 달리 기존의 사회과학에서 별다른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콤레히트(H. U. Gumbrecht)는 그 이유를, 사회과학, 특히 계몽주의와 근대성의 산물로 등장한 사회학이 관념론적 철학으로부터 사상적 자극을 받아온 것에서 찾고 있다. 육체보다 의식을 중시하는 철학의 영향 하에서 공간은 육체와 연결되었고, 시간은 의식과 결합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H. U. Gumbrecht, 1991: 56; M. Schrör, 2010: 20) 이러한 경향은 시간을 이동성, 역동성, 진보성, 변동, 역사 등의 개념과 결부시키는 한편, 공간을 비이동성, 정체, 반동, 정지, 견고함 등과 결부시키는 사고방식을 일반화했다.(M. Schrör, 2010: 21; E. Soja, 2015: 282) 그 결과 공간은 변동과 변화를 천착해 온 사회학 이론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었으며, 근대화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사회 변동 이론에서 변동의 주역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68학생운동과 도시의 위기는 공간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E. Soja, 2015: 289) 당시 공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데 앞장 선 이는 르페브르(H. Lefebvre)와 푸코(M. Foucault)였다. 이 중 르페브르는 1960년대 초 상황주의자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유럽의 몇몇 도시들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문제를 자본주의 비판과 정치적 대안의 핵심적 토대로 상정했다. 그리고 이미 줄고에서 지적했던 ‘일상이 작품이 되게 하라’는 문화혁명 전략을(정수진, 2017: 243)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삶은 새로운 공간의 생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시켰다.(박영민 외, 2001: 473)

공간을 천착해 온 지리학을 포함해서, 공간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은 그것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표면적이면서도 측량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르페브르의 핵심 주장인 공간생산론에 따르면, 공간은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적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산물이다. 서로 다른 공간적 실천은 서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특유의 집과 일터, 여가공간의 분리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조직한 결과다.

공간이 일상적 실천의 범위와 형태를 조직한다면, 일상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자본주의적 공간 역시 재생산된다. 이를테면 공간적 실천은 애초 이용자의 사용가치 위주로 편성되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시장의 교환가치로 공간의 값이 매겨지면서 공간들 사이로 복잡한 자본의 네트워크가 침투해 들어왔고, 그 결과 자본의 네트워크를 따라 챗바퀴 도는 일상적 삶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간적 실천이 이처럼 지배 질서의 재생산에만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적 과학기술과 추상적 지식의 산물인 ‘공간재현(Les représentations de l'espace)’은 공간적 실천에 부분적으로만 개입하며, 자본주의적 공간 재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공간적 실천들이 저항의 맹아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생산된다.(H. Lefebvre, 2011; 박영민 외, 2001: 473~474) 르페브르는 이러한 공간생산론을 통해 구조와 행위를 통합하고, 나아가 일상적 삶의 역동성과 구조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모색했던 것이다.

## 4. 공간의 재편

르페브르와 푸코의 새로운 공간론이 제이콥스(J. Jacobs)와 하비(D. Harvey)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 계승되고 급기야 ‘공간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만큼 공간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현실 사회의 급격한 변동, 즉 글로벌 시대의 도래 역시 공간적 사유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했다.

글로벌화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추동력으로 산출된 결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비(D. Harvey)는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시공간의 압축’으로 묘사하는바, 시간을 통한 공간적 장벽의 붕괴는 자본주의가 전개되는 일련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를테면 철도와 전신, 자동차, 라디오와 전화, 제트 항공기와 텔레비전, 최근의 전자통신 혁명 등은 생산, 유통의 네트워크, 소비의 전 부분에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려는 자본주의적 동기로부터 산출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그 결과 글로벌화를 ‘시공간의 압축’, 뿐만 아니라 ‘거리의 죽음’, ‘장소 없는 사회’, ‘공간의 수축’, ‘지리학의 종말’, ‘공간의 종말’ 등으로 표현하는 수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공간의 소멸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글로벌화에 대한 중요한 저항의 한 형태로 글로벌(스케일)의 대척점에 있는 로컬(스케일)의 재영도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슈뢰르(M. Schrör)는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들이 특정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장소 혹은 로컬은 글로벌한 영향력에 반대·저항하는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살아남는다는 것이다.(M. Schrör, 2010: 193).<sup>3</sup> 하비 또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토대를 로컬에서 찾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은 자본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제한적이거나 효과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D. Harvey, 2004: 352~353)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슈뢰르는 공간의 소멸을 주장하는 명제들이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 정치의 영향력 약화를 과장함으로써 정치 일반을 국가정치와 동일시하고 공간을 물질적 영토와 동일시하는 한계를 노정했다고 비판했다.(M. Schrör, 2010: 193)

자본주의의 유연성과 유연적 축적(flexible accumulation)체계의 발전 또한 로컬의 재영도화를 계고하는 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동력이다. 공간적 장벽이 감소할수록 ‘공간 내 장소의 차이’에 대한 자본의 민감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의 입지 전략과 관련해서, 글로벌 자본은 시공간의 압축으로 인해 확보된 유연성과 이동성을 바탕으로 로컬 노동시장의 특수성이나 로컬 사회의 문화적 특징 혹은 전통들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60년대의 혁명적 슬로건이었던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로컬하게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가 글로벌 기업의 슬로건으로 전용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자본은 로컬을 동질화시키는 순간에도 로컬이 자본에 저항하는 장소임을 환기시키면서 저항의 대상을 흐린다.

이러한 이해의 토대 위에 서면, 글로벌화가 공간의 소멸을 초래했다고 보기보다는, 그것이 국가를 경계로 나뉘었던 기존의 국제 질서를 ‘로컬/내쇼널/글로벌’이라는 새로운 공간 구조로 재편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겠다. 물론, 이 삼자의 관계는 단지 스케일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수직적 조합으로 조망될 수 없다. 이것들은 중층적이고도 상호침투적이며,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협약이 그러하듯이 글로벌 기구와 글로벌 협치(global governance)의 논리가 국내 정치의 논리에 겹쳐지는가 하면, 로컬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 지구 반대편의 로컬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목도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제적 조직화에 의해 국가의 권력과 기능이 약화되는가 하면, 국가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간의 긴장과 갈등이 글로벌한 협치의 권위를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오늘의 글로벌화를 조망하는 데 있어 기존의 중심/주변 모델, 혹은 경제결정론과 같은 환원론적 설명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아파두라이(A. Appadurai)는 글로벌화를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적인(disjunctive) 질서의 산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 Appadurai, 2004: 60) 즉, 글로벌화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종류의 세계적 흐름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 탈구이며, 이러한 탈구들 속에서 혹은 그것을 통해 창출되는 불확실한 정경들, 그 위에서 벌어지는 “동일성과 차이의 무한히 다양화된 상호 경쟁의 산물”이라고 정의했다.(A. Appadurai, 2004: 79)

## 5. 로컬리티와 일상 연구

주목되는 것은 하비와 슈뢰르가 지적했던 로컬과 장소정체성의 문제다. 우선 로컬을 주목해 보면, 로컬은 “물리적, 사회적 공간 단위로서 지역 혹은 지방으로 불리는 국가 하부의 국지적 단위”로 정의해 볼 수 있겠다.(문재원, 2016: 307) 그러나 글로벌 시대의 로컬은 이렇듯 객관적이고도 공허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 무엇보다 대량이주와 전자매체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활동과 거주 영역이 지속적으로 탈영토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안정적이었던 기존의 로컬이 지속적으로 침식, 내파하는 상황을 직면하면서, 장소정체성 즉 ‘로컬리티’를 유연적이고도 미완적인 형태로 만들고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A. Appadurai, 2004: 345)<sup>4</sup>

아파두라이에 따르면, 로컬리티는 “사회적 직접성, 개인들 간의 상호소통 방식, 맥락들 간의 관련성 등을 이어주는 일련의 연결고리들로 구성”되며, “인간의 행위 주체성, 사회적, 재생산 가능성 등을 통해 그 자체를 재현하는 현상학적 자질”이다. 이 자질은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생산되며 동시에 특정한 물질적 효과들을 산출하는 감정의 구조”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사람들은 집단의례를 통해 로컬의 주체들을 생산해왔으며, 특정 장소에 이름을 붙이거나 집과 길, 농지를 조성하고 경계 짓는 것을 통해 로컬리티를 시공간적으로 생산해왔다.(A. Appadurai, 2004: 345) 그런 점에서 로컬리티는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침투해 들어오는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면서 자신들을 둘러싼 제반 조건들을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실천의 산물이다.

이러한 논리를 다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으로 연결시켜 보면, 이 로컬리티는 그가 말하는 공간적 실천과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추상적·지적 고안물로서 ‘공간재현’에 맞서 공간의 사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대항 공간을 만든다. 르페브르는 이를 ‘재현공간(Les espaces de représentation)’이라고 부른다. 이 공간은 그곳에 새겨진 지배적 코드를 거부함으로써 비위진 가능성의 자리를 상상력으로 채우는데, 그들의 감정적 준거로 기능하는 이 공간은 정열과 행동을 위한 장소이자 체험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자아, 침대, 방, 집, 광장, 교회, 묘지 등이 이러한 공간들의 실례들이다. 그런 점에서 재현공간은 본질적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며 맥락적이고 관계적이다.

르페브르는 ‘재현공간’이야말로 민속학자, 인류학자, 정신분석가들이 주목해 온 연구 대상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그곳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재현공간들과 공존하면서 일치하거나 불화하는, 혹은 그러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개입하는 ‘공간재현’들을 간과하거나, ‘공간적 실천’을 소홀히 하는 데 있다고 비판한다.(H. Lefebvre, 2011: 91~92) 이것은 무슨 뜻인가? 그가 지적하는 공간 생산의 삼각변증법(trialectics)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다시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의 대립적 관계를 주목해보자. ‘공간재현’이 언어화된 구조의 질서를 따르는 지배적인 공간 규정의 논리라면, ‘재현공간’은 여기에 대립하는 체험된 공간성이다. 과학적인 공

간 인식, 혹은 공간에 대한 엄격한 체계화의 시도가 ‘공간재현’의 사례라면, 예술작품을 통한 공간적 일탈의 시도들은 ‘재현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런던의 스케이트 보드 토비는 밤이 되면 리버풀 스트리트 오피스 블록의 길가를 장악한 채 스케이트 보드 연습에 열중한다. 그가 몸으로 느끼는 연습장으로서 이 공간의 사용가치와, 오피스로서 이 공간의 시장 교환가치는 늘 충돌한다. 그는 결국 다른 곳으로 쫓겨 갈 테지만, ‘여기선 안 돼’라고 새겨진 ‘no’의 공간을 ‘안 될 거 뭐 있어’라며 살아있는 몸으로 ‘yes’의 공간으로 바꿔놓는 일, 이것이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의 차이다.(I. Borden, 1998: 49; 박영민 외, 2001: 476)

그러나 이 둘 간의 관계는 단지 대립적인 것으로만 상정될 수 없다. 대립으로만 보는 것은 그것이 오로지 이성적이고도 자명한 이치로서, 정신적 생활의 대상일 때뿐이다. 이 대립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간을 산출하는가를 주목해 보면, 그 과정에서 이 요소들은 대립적 관계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게다가 이들 간의 대립은 일상의 실천 양식으로서 ‘공간적 실천(La pratique spatiale)’을 통해 다층화 된다. 즉, ‘공간적 실천’은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의 대립을 종합하고 반영하면서 또 때로는 그 둘과 불화하기도 하면서, 두 항과 다른 층위에서 공간의 총체적 생산에 개입한다.

공간에 대한 이 세 가지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 그가 활용하고 있는 몸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면 이렇다. ‘공간적 실천’-‘공간재현’-‘재현공간’의 관계는 ‘지각된 것(신체 기관을 이용해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것)’-‘인지된 것(이데올로기와 혼합되어 보급되는 몸에 대한 해부학적, 심리적 지식)’-‘체험된 것(거북하거나 아픈 것으로 체험되는 몸)’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한데 모여야 비로소 그 집단의 구성원이 길을 잃지 않고 순조롭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계기들은 공간 생산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며, 이들 간의 관계 또한 단순하지도 안정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계기를 구별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 모델이자 원리적인 접근일 뿐 그 자체로 현실적 공간을 온전히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공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H. Lefebvre, 2011: 90)

르페브르가 이렇듯 역동적으로 포개지는 세 계기들의 삼각변증법과 그 결과 생산되는 공간의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탐구한 이유는, 공간이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임을 드러내고 자본주의의 모순과 갈등이 어느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역동적 변증법을 통해 자본주의의 지배적 공간에 저항하는 새로운 차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 무엇보다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그가 일상과 공간을 주목한 진정한 이유였다.

이러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 나아가 앞에서 살핀 공간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의 일상 연구 방법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여기서 그 분석 사례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면상의 문제로 어렵거나, 그와 관련해서는 내가 쓴 다른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란다.<sup>5</sup> 다만, 여기서는 공간에 대한 논의들이 우리의 일상 연구에 시사하는 바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겠다.

첫째, 일상에 대한 공간적 접근은 우리가 일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효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는 공간적 스케일을 구체화한다.

둘째,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기왕의 민속학적, 인류학적 연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일상적 공간의 다층적 구성양상을 밝혀냄으로써 보다 역동적이고도 중층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는 일상을 대상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셋째, 위에서 지적했듯이 ‘공간적 전환’의 패러다임은 공간의 본질적 특성이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로컬리티, 즉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모습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공간적 실천과 결부시켜 주목할 것을, 나아가 그것이 ‘차이의 공간’을 만드는 공간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음을 일깨운다.

注

- 1 이 용어는 그의 공간생산론을 구성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2 이 표현은 소자(E. Soja)가 1989년에 처음 쓴 표현으로 이후 여러 사회·문화학자들에 의해 통용되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표현은 1970년대 등장한 ‘언어적 전환’에 빚들어 공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담론의 증대를 지칭하는 말이다.(J. Döring & T. Thielmann, 2015: 7~17)
- 3 여기서 ‘장소(place)’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구분 방식으로서 공간과 달리,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한정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다.
- 4 김석수는 로컬리티를 지역성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성이란 특정한 공간과 시간, 그 속에 자리하는 몸을 통합하는 것으로, 단순한 물리적 공간성을 넘어 사회문화적 관계와 의미 등이 통합된 실체로서 삶의 현장’이다.(金碩洙, 2010: 35)
- 5 정수진, 「차이 공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도시 공간에서 마을 만들기」, 『실천민속학연구』 31, 실천민속학회, 2018.

참고문헌

A. Appadurai, 차원현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Modernity at large*), 현실문화연구, 2004.

D. Harvey, 구동희 역,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한울, 2004.

E. Soja, 이기숙 역, 「“시대정신”에서 “공간정신”으로: 공간적 전회에 대한 새로운 왜곡들」, J. Döring & T. Thielmann, 『공간적 전회』(*Spatial Turn*), 심산, 2015.

H. Bausinger, trans. E. Dettmer, *Folk Culture in a World of Technology*;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1990.

H. Lefebvre, 양영란 역, 『공간의 생산』(*La Production de l'espace*), 예코리브르, 2011.

H. U. Gumbrecht, “Nach moderne zeiten räume”, in ders./Robert Weimann(Hg.), *Postmederne-globale Differenz*, Frankfurt/M., 1991, 54~70.

I. Borden, “An Affirmation of Urban Life: Skateboarding and Socio-Spatial Censorship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City”, *Archis* 1998/5(special issue on the Great Britain), 1998.

J. Kocka, 한운석 역, 『임금노동과 계급형성』(*Lohnarbeit und Klassenbildung*), 한마당, 1987.

M. Schrör, 정인모 외 역, 『공간, 장소, 경계』(*Räume, Orte, Grenzen*), 예코리브르, 2010.

강수택, 『일상생활의 페러다임 - 현대 사회학의 이해』, 민음사, 1998.

김석수, 「21세기 사회에서 로컬리티와 인문학」, 『탈근대 탈중심의 로컬리티』, 해안, 2010, 19~50.

김왕배, 「자본주의 일상생활의 세계」,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995, 59~68.

문재원,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15,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6, 305~314.

박영민, 金南州, 「르페브르의 공간변증법」, 국토연구원 편, 『공간이론의 사상가들』, 한울, 2001, 470~481.

이상봉, 「탈근대, 공간의 재영역화와 로컬·로컬리티」, 『한국민족문화』 32,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30.

정수진, 「미디어의 일상화, 일상의 미디어화」, 『일상과 문화』 3, 일상과 문화연구회, 2017, 241~252.

정수진, 「글로벌 시대의 한국민속학과 로컬리티」, 『민속학연구』 33, 국립민속박물관, 2013, 167~187.

정수진, 「차이 공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도시 공간에서 마을 만들기」, 『실천민속학연구』 31, 실천민속학회, 2018, 109~135.